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로씨야련방 국방상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7월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축하방문하고있는 셰르게이 소이구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소이구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소이구 국방상과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소이구 국방상은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보내온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전 로씨야련방 대통령의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따뜻하고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 부전대통령에게 사의를 표시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영

광스러운 승리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소이구 국방상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을 평양에 보낸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였다.

담화에서는 뿌리깊은 조로친선의 역사를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국방안전분야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전투적우의

의 감정이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담화가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소이구 국방상이 성의껏 마련한 선물을 올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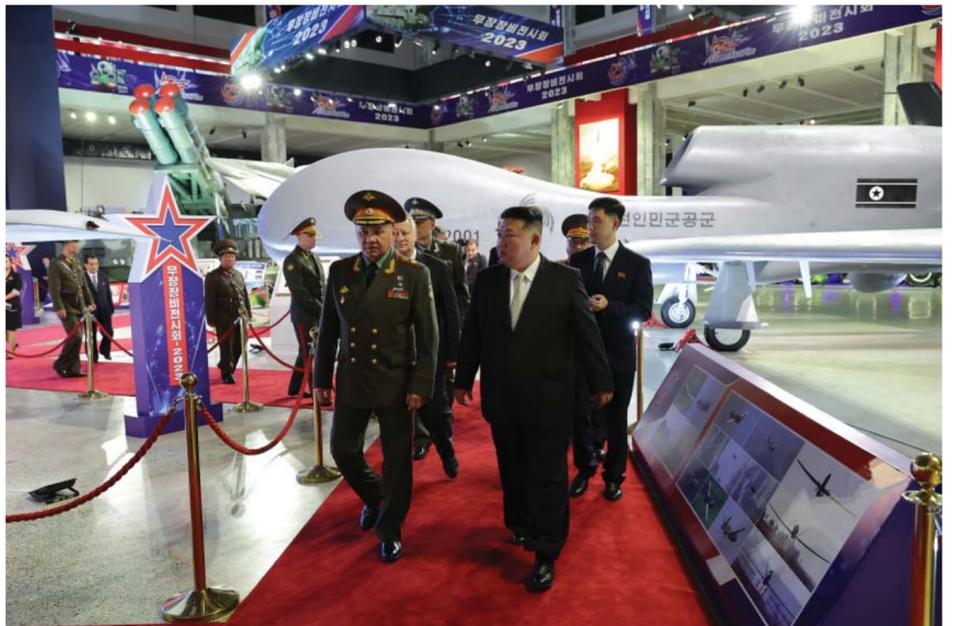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로씨야련방 국방상의 우리 나라 방문을 기념하여 자신께서 마련하신 기념품을 소이구 국방상에게 선물하시였다.

중요한 계기에 이루어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과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사이의 상봉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처하여 국방안전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전략적협력동과 협조를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전승 70돐을 맞으 며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과 함께 무장장비 전시 회장을 돌아 보 시 였 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주최로 《무장장비 전시회-2023》이 진행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7월 26일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과 군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시회장에 도착하시자 강순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이 영접보고를 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국방성 지휘관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과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 성원들이 전투적우의와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대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데 대하여 다시금 사의를 표시하였다.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은 김정은 원수님께서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체류일정을 깊이 관심해주시고 뜻깊은 계기를 마련해주시며 환대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과 함께 신행무장장

비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에게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연구 개발생산되어 최근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있는 무기전투기술기체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세계적인 무장장비발전추세와 발전전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셰르게이 소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과 담소하시면서 제

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두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국제적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로씨야군대와 인민이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쟁취하리라는 확신을 거듭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